

10
2023

재외동포의



- 특집 _ 윤석열 대통령, 추석날 日 원폭 피해 한인들 초청해 오찬
- 기획 _ 윤석열 대통령, 파독 근로자들과 오찬... “맘과 헌신 예우하겠다”
재외동포청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해 동포 자긍심 고취”
- 화제 _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첫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서울서 열려



10월 7일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기쁩니다. 세계 한인의 날과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고국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수상하신 분들께도 정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자돈이 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재외동포들의 모국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석에 원폭 피해 동포들, 그리고 어제는 파독 근로 동포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들의 삶이 바로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현대사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

힘을 모아 뿔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힘을 모아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유, 인권, 법치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뒷받침과 기여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동포 여러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이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은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내려 오셨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



- 02 권두언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 04 특집 윤석열 대통령, 추석날 日 원폭 피해 한인들 초청해 오찬
- 06 기획 윤석열 대통령, 파독 근로자들과 오찬... "땀과 헌신 예우하겠다"
재외동포청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해 동포 자긍심 고취"
- 08 화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첫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서울서 열려
- 10 한민족 공감 윤석열 대통령, 인도 뉴델리서 동포간담회 개최
- 12 글로벌 코리아 앤디 김 출마 선언... 한국계 첫 美 연방 상원의원 탄생하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부장관에 조성훈 의원
미 캘리포니아주 도시연맹 이사회 부의장에 프레드 정 플러턴 시장
- 14 유공 동포 '베트남 한인사회의 산증인' 이순흥 전 호찌민한인회장 별세
- 15 주목! 차세대 한인 고교생 최준혁, 뉴질랜드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
- 16 지구촌 통신원 죽음 앞둔 환자의 '마지막 얘기' 들어주는 미국의 한국계 목사
- 18 동포소식 식민지 청년의 항일운동을 그린 연극 '현해탄' 도쿄서 상연 외
- 20 문화유산 강진 백련사와 다산초당... '불교 구도의 성지'와 '실학의 요람'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뱅크, 대한민국 바로 알리는 공공외교 힘 모은다 외
- 24 동포 캘린더 재일민단, 도쿄서 재일동포 차세대 대상 한복 체험 행사 외
- 25 인터뷰 하기환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회장
"21년 역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미국서 첫 개최로 재도약"
- 26 재외동포청 공지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1월 13~16일 서울서 개최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날 日 원폭 피해 한인들 초청해 오찬

“여러분 모시기까지 78년 걸려... 너무 늦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29일 한국과 일본에 사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의 환영사에서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초청 약속 지켜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이 4개월 전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회고하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준오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 “희망 갖게 됐다”

권준오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은 간담회 답사에서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를 언급하며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일관계가 좋기를 바란다”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9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사를 듣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중앙 왼쪽)이 9월 28일 인천공항에서 원폭 피해 재일동포 방문단을 환영하고 있다.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2023. 9. 29. (금)



3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유영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무국장은 “언니 두 명과 부모님이 피해자인데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이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 상에는 삼색전, 전통 잡채, 전복찜, 떡갈비 구이 등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 올랐다고 한다.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이 가야금 3중주와 부채춤을 선보였으며 바리톤 김동규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동포들에게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3명과 한국 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을 비롯해 국민 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김은혜 홍보수석·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동포 보듬기’ 1호 사업 히로시마 피폭 한인과 가족 초청

앞서 일본 히로시마 거주 피폭 한인과 가족 43명은 재외동포청의 ‘동포 보듬기’ 1호 사업으로 9월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공항에서 이들을 영접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피폭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오셨는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조국이 곁에 있어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소외 동포 지원과 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로했다.

10월 3일까지 서울에 머문 이들은 경복궁, 인사동, 국립현충원, 서대문형무소, 롯데타워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했다. 이 청장은

이들의 희생과 아픔을 위로하는 만찬을 열었으며, 대한적십자사 건강검진센터는 이들에게 특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등으로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대 3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나가사키 거주 피폭 한인 초청도 추진했으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다음으로 미뤄졌다. **▶**



4

윤석열 대통령, 파독 근로자들과 오찬... “땀과 헌신 예우하겠다”

“여러분 삶이 곧 우리 현대사... 이제 대한민국이 모실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국내외에 사는 파독(派獨)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 명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2만여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낮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파독 60주년 맞이 행사... “파독 근로자 초청 오찬은 처음”

이날 오찬은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들만 초청해 오찬을 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찬에서는 파독 광부·간호사들로 이뤄진 ‘글뤼아우프 합창단’ 30명이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등을 노래하는 공연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청와대에서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사진전’ 열어

한편 재외동포청은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5~9일 닷새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경제 근대화에 청춘을 바쳐 이바지한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획됐다. [▶](#)

1.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 앞서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해 동포 자긍심 고취”

출범 100일 간담회서 로드맵 발표… “동포사회·모국 상생에 앞장”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현지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9월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5일 기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외교부 외청으로 격상돼 출범했다.

이 청장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일은 현지화하는 동포 차세대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동포사회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외교 사업은 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 등에도 한국을 알리는 일이므로 현지 사정에 능통한 동포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재단과 달리 동포청은 정책 수립 기능이 있다”며 “이를 위해 출범 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고, 내년까지 다수의 동포가 거주하는 중국 등 20여 개국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대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이탈 조항 완화,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9월 13일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발전상이 실린 네덜란드 교과서를 소개하고 있다.

예산 늘려 한글학교·소외 동포·국내 체류 동포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도 소개했다. 2023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630억 원이었는데 동포 청의 내년 예산은 1천55억 원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더해진 측면도 있지만 이를 빼도 147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한 것은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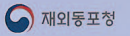
이 청장은 특히 차세대 육성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을 160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28% 증액했고, 차세대 초청 연수 규모를 2천300명에서 3천 명으로 늘렸다. 5년 후에는 9천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으로 소외 동포 초청사업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꼽았다. 원폭 피해 재일동포, 파독 근로자, 고려인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또 인구절벽의 해법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체류·정착 지원 사업도 펼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대상은 해외 거주 동포로 제한되어 있어서 국내 체류 동포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었다. 동포청은 이들이 모국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재단이 펼쳐왔던 사업에 관해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에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필요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했기에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소통해 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동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1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첫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서울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 “동포들은 든든한 지원군… 750만 명 펼 운동장 넓힐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펼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한 세계한인의 날 행사로,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증자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

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세계 192개 지역 한인회장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파친코’ 출연 재일한국인 3세 박소희 씨 “자이니치, 한일 모두 200% 가진 존재”

이날 행사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소희 씨가 차세대 동포 대표로서 답사를 낭독했다. 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

코'에 둘째 아들 역으로 열연했다. 할리우드에서 '소지 아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박 씨는 "일본 친구 말처럼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자이니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한인들에게 '우리가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200%의 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저는 자이니치로 자랑스러운 재외동포가 되겠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달라"고 말해 현장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병직 미주한인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750만 영업사원이 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배효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한일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등 동포 5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도 열려... 동포사회·모국 동반성장 모색 60개국 한인사회 리더 400여명 참가... "한인 권의 신장·소통 강화"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이 모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4~6일 사흘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60여 개국 현지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 등 400여 명과 국회,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했다.

10월 4일 개회식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기태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 단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대회 공동의장인 여건이 제일 본대한민국민단 단장·김병직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심삼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윤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유재현 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등 대륙별 한인회연합회장 등도 함께했다.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 드리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등 10개 지역별 현안 토론과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또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유관기관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특히 재외동포청의 동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동포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하는 서비스지원센터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한인회장들은 폐막일인 10월 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 기여',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대한민국 발전상 알리기 공공외교 전개', '재외선거 제도 보완과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법 개정',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소속 건립 촉구',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로는 '튀르키예 대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한국마을 건립 사업'을 발표한 튀르키예 한인회가 선정됐다. 차기 대회 공동의장은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과 현광훈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선정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환송사에서 "전 세계 한인회장을 만나 뵙고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외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외동포 박소희 배우가 답사를 낭독하고 있다.
3. 10월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는 김석기(왼쪽)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
4. 10월 6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환송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도 뉴델리서 동포간담회 개최

G20 개최지 인도 뉴델리 방문 첫 일정... “인도는 중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9월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개최지인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과 만나 “인도는 자유, 인권, 법치를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우리와 함께 가꿔 나아가야 할 중요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첫 일정으로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올해 수교 50주년에 이르기까지 한·인도 관계는 쉬지 않고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기업들과 함께 시장 개척한 여러분 덕분에 양국 관계 발전”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의 경제 개방 초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은 과감하게 인도에 진출했고 이제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이 인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며 “최근에는 금융, 방산, 식품, 의류 등의 분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인도 시장을 개척한 여러분 노력 덕분에 양국 관계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사실도 언급하며 “모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활

동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모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인류 전체 과제를 풀어가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봉 인도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본국의 철수령에 따라 대부분 인도를 버리고 떠났던 다른 나라 교민들과 달리 대부분 우리 동포는 인도에 남아 인도인들과 합심해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한국인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과 인도 전통 복장을 각각 입은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인도 진출 기업인들과도 오찬 간담회 가져

윤 대통령은 이어 9월 10일에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



1



2



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 8일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강호봉 인도 한인회장(앞줄 맨 오른쪽)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0일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9월 8일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0일 인도 뉴델리의 정상회의장인 바라트 만다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과도 만났다. 그는 이날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인도 시장 상황과 진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업 활동 중 통관과 행정 규제, 인프라 등 현지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섬유,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제조업과 물류, IT, 모바일게임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인도 시장 기회를 잡기 위해 5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설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키로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들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을 지속하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IT·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폭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 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도 진전시킬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앤디 김 출마 선언... 한국계 첫 美 연방 상원의원 탄생하나 뇌물혐의로 기소된 뉴저지 메넨데스 상원의원에 도전장

미국 뉴저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인 2세 앤디 김(41) 연방 하원의원이 상원에 도전한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9월 23일(현지시간) 김 의원이 이날 뉴저지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같은 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전날 지역구인 뉴저지의 사업가들로부터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메넨데스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하거나, 국가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된다.

뉴저지주 남부에서 자란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중동 안보 전문가다. 지난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입성했고,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 대응에 힘을 보탤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이지만, 그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3선에 성공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부 장관에 조성훈 의원 온타리오주 한인 장관으로는 조성준에 이어 두 번째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와 수도 오타와를 포함해 인구가 1천450만 명에 달하는 온타리오주의 장기요양부 장관에 한인 2세 조성훈(영어명 스탠 조·46) 교통부 부장관이 임명됐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9월 5일(현지시간) 조 장관을 장기요양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온타리오주 장관에 오른 한인은 조성준 현 노인복지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주의원 선거에서 노스욕 윌로우데일 선거구



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토론토 윌로우데일 출신인 그는 부동산업에 종사했다. 평화마라톤과 한가위 한인 대축제 등 한인사회의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사회자로 활동하는 등 한인사회 봉사에도 앞장섰다.

조성준 장관의 캠프에서 선거를 지원했던 그는 2018년 주의회에 입성했고, 재정위원회와 재무부 부장관보로 활약하다 교통부 부장관에 발탁됐다.

현지 한인사회는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이 임명되자 '제2 한인요양원'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반기고 있다. 조성준 장관도 "앞으로 노인복지부와 함께 새 요양원 건립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도시연맹 이사회 부의장에 프레드 정 플러턴 시장 5세 때 미국에 이민한 한인 1.5세... 플러턴시 첫 한인 시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협의회인 캘시티(도시연맹) 이사회 부의장에 한인 1.5세인 프레드 정 플러턴 시장이 선출됐다. 현지 한인 방송 등 동포 매체는 최근 열린 연례 캘시티 미팅에서 정 시장이 부의장에 올랐다고 9월 20일 밝혔다.


476개 도시가 가입된 캘시티는 각 도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모임이다. 정 부의장은 내년 12월까지 이 연맹의 교통·통신·공공사업위원회를 관장한다.

이 위원회는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트럴밸리, 임페리얼밸리, 노스베이, 몬터레이베이, 새크라멘토밸리 등 도시의 시의원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각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캘리포니아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현재 오렌지카운티 전력국 이사회(OCIPA) 의장, 오렌지카운티 교통국 교통위원회 부의장, 남부 캘리포니아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이사회도 맡고 있다.

다섯 살 때 미국에 가족 이민한 그는 오렌지카운티 플러턴시에서 성장하면서 1992년 4·29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목격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했다. 시 교통 및 순환 커미셔너, 서니힐스고교 풋볼 코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커미셔너, 경찰국장 서치 커미셔너 등을 지냈다.

2020년 11월 인구 14만여 명에 달하는 플러턴시 시의원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고, 이듬해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인 첫 시장에 선출됐다. 



‘베트남 한인사회의 산증인’ 이순흥 전 호찌민한인회장 별세

향년 85세... 월남 패망 후 6년간 현지에 억류됐다 풀려나기도

이순흥 전 베트남 호찌민한인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호찌민한인회는 이 전 회장이 9월 20일 밤 별세했으며, 장례는 주호찌민 총영사관 별관 2층(옛 한인회관)에서 호찌민한인회장(葬)으로 치러졌다고 전했다.

호찌민한인회에 따르면, ‘베트남 한인사회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고인은 1968년 현지에 고철과 비철금속 등의 자재를 수출하는 회사를 설립해 남베트남(월남)에 진출했다. 7년 뒤인 1975년 4월 30일 수도 호찌민시(당시 이름 사이공시)가 공산 북베트남(월맹)군에 함락되면서 1981년 5월까지 6년간 현지에서 억류 생활을 해야만 했다. 당일 호찌민시에 남아있던 한국 공관원과 동포들을 돕다가 철수하는 미군의 마지막 헬리콥터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간 베트남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동포 150여 명을 대표해 호찌민한인회 2~3대 회장을 맡아 동포들의 단계적 철수를 돕고, 이대용 당시 주베트남 공사를 비롯해 억류된 한국 공관원 8명의 뒷바라지도 했다. 이 일은 이 공사가 나중에 쓴 책 ‘사이공 억류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덕수상고와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이 전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2년 후인 1994년 베트남으로 다시 건너가 사업을 재개했다. 무역 중계와 부동산투자 컨설팅을 했으며 현지에서 ‘베트남 투데이’란 제호의 경제지를 창간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베트남협의회회 초대 회장,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의 제6대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업적으로 1981년 한국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베트남한인회총연합회 겸 호찌민한인회의 손인선 회장은 “베트남 동포사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고 한인회 기초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신 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



고(故) 이순흥 베트남 호찌민한인회 회장



한인 고교생 최준혁, 뉴질랜드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 주니어 대표도 겸해…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목표”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 고교생이 현지 탁구 국가대표 선수에 발탁됐다. 명문 남자고등학교인 오클랜드 그래머 스쿨(AGS)에 재학 중인 최준혁(15) 군은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뉴질랜드를 대표한다고 9월 21일 현지 동포신문 코리아포스트가 전했다.

최 군은 10살 때부터 매년 13세 이하와 15세 이하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그는 뉴질랜드 탁구협회(TTNZ)가 지정하는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초순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대회와 카타르 도하 대회에 연속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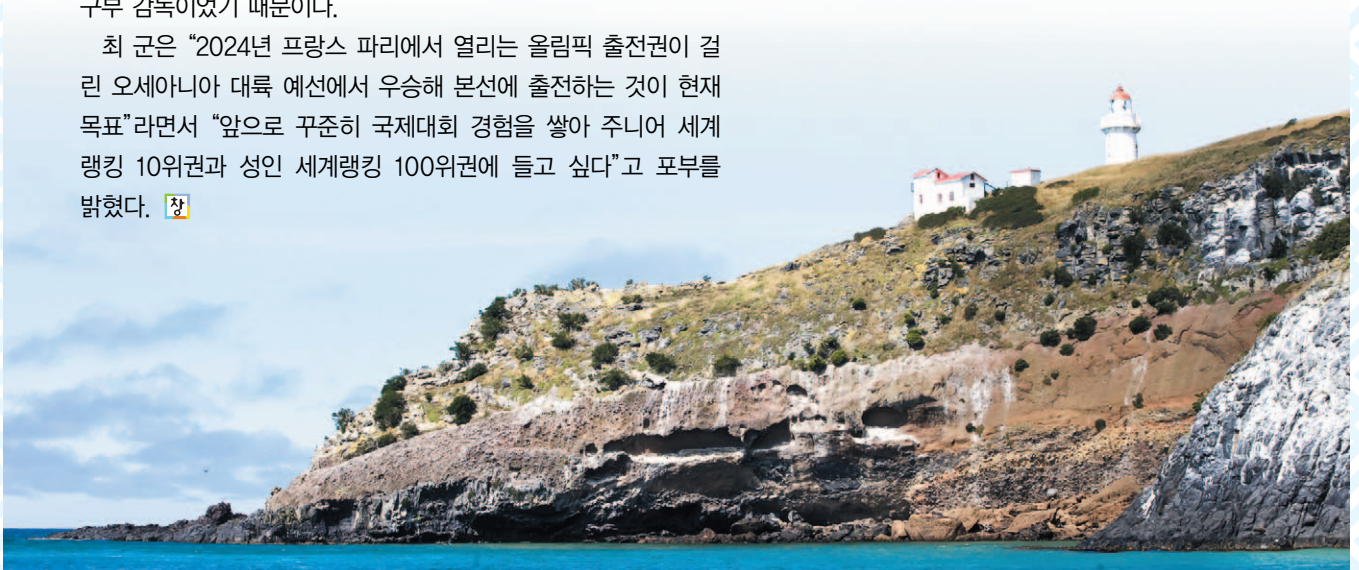
최 군은 그동안 올림픽 예선과 오세아니아 챔피언십, 노스아일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성인 남자 단식 1위와 복식 1위, 19세 이하 단식 1위와 복식 1위를 차지했다. 그가 탁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7살 때다. 아버지와 재미로 시작했지만, 탁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매년 12월마다 한국에 날아와 한 달 정도 전지훈련을 하기도 했다. 부친의 지인이 한 중·고교 탁구부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최 군은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에서 우승해 본선에 출전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면서 “앞으로 꾸준히 국제대회 경험을 쌓아 주니어 세계랭킹 10위권과 성인 세계랭킹 100위권에 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뉴질랜드 탁구 국가대표에 발탁된 최준혁(15) 군



죽음 앞둔 환자의 '마지막 얘기' 들어주는 미국의 한국계 목사

CNN, 플로리다 탬파 종합병원서 8년간 근무한 박준 목사 인터뷰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어준 한국계 박준 (Park Joon · 41) 목사의 사연이 CNN 방송에 보도됐다. CNN은 9월 19일(현지시간) “그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생각한다”며 박 목사가 그동안 병원에서 해온 일을 자세히 소개했다.

암에 걸리기 전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며 길거리에서 지내던 한 청년은 임종 직전 박 목사에게 “꿈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생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집에 대한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줬다. 갓 태어난 세쌍둥이를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는 박 목사 앞에서 애끓는 비명을 내질렀다. 죽음 앞에서 겁에 질린 10대 소녀는 자신이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자신을 ‘슬픔을 포착하는 사람’(grief catcher)이라고 규정한 박 목사는 지난 8년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1천40병상 규모의 탬파 종합병원에서 원목을 맡아 죽어가는 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만난 환자들의 삶에 깊이 빠져들면서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어린 시절 학대 상처 딛고 원목의 길... 환자 영혼 위로하고 싶어”

그가 병원에서 목사로 일하게 된 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큰 영향을 줬다. 한인 이민자 2세인 그는 플로리다 라르고에서 자랐다. 어른의 권위를 중시하는 부모 밑에서 그는 어린 시절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회고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고, 영성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쳐 있었고 우울했다”며 “어떤 것에 몰입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 치료와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자신이 어린 시절 갖고 싶었던 ‘롤모델’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목사의 길을 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겪어온 일들을 통해 환자나 그 가족들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목으로 일하면서 어떤 목적도 없이 오로지 완전한 연민과 이해로 상대를 보고, 듣고, 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1. 박준 목사(41·왼쪽)와 함께 탬파 종합병원에서 사역하는 동료 목사들(박준 목사 페이스북 캡처)
2.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종합병원의 원목을 맡고 있는 박준(오른쪽) 목사가 동료 목사와 함께 병원에서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CNN 홈페이지 캡처)
3. 미국 플로리다 탬파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박준(박준@sparkblog의 '엑스'(X) 게시물 캡처)



2

“성직자(priest)와 치료사(therapist)의 중간 성격인 ‘치료 목사’(therapist)”

박 목사는 또 자신이 성직자(priest)와 치료사(therapist)의 중간 성격인 ‘치료 목사’(therapist)라면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원한다면 종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정신 건강에서 슬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우리는 신앙과 죽음 사이의 어떤 공간에 있고, 환자들이 대화를 원할 때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인스타그램과 ‘엑스’(X, 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도 공유하며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최근에 그는 “매주 슬픔을 마주하는 사람이 전하는 몇 가지 알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 일을 좋아하지만,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앉아있을 때면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 등불에 불과하죠. 언제든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를 찾은 환자 온전히 봐주는 게 내 희망”

이 병원의 말기 환자 간병 책임자인 하워드 터치는 박 목사와 다른 원목들이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주제는 ‘후회’ 라면서 대부분의 후회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늘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자원이거나 시스템, 주변 문화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마침내 자유를 찾은 환자를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말했다. **▶**

임미나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3

식민지 청년의 항일운동을 그린 연극 '현해탄' 도쿄서 상연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에 눈을 뜬 조선 청년이 항일 운동에 나서 는 모습을 그린 소설 '현해탄'을 소재로 한 연극이 9월 2~3일 이 틀간 일본 도쿄에서 상연됐다. 재일동포 1세 소설가 김달수가 1954년에 발표한 '현해탄'은 해방 전 조선인 지식인의 민족적 자 각을 그렸다.

특히 일제 식민 통치의 비인간성을 뛰어넘게 묘사해 일본 최고 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에 오르는 등 주류 문단으로 부터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극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에 취업한 주인 공이 기자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항일 운동에 나서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도쿄 조후시센가와극장에서 상연된 이 연 극에는 시인 운동주의 생애를 그린 1인극에 출연한 배우 니노미야 사토시(二宮聡) 등이 출연했다.

현해탄을 상연하는 모임을 이끌며 공연을 기획한 재일 수필가 오문자 씨는 "저자가 작품에서 묘사한 평화와 공생의 메시지를 널



일본 도쿄에서 상연된 연극 '현해탄'의 한 장면

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연극"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근대 양국 관 계의 어두운 역사를 직시할 때 비로소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 34대 한인회장에 오혜영 한호문화교류협회장

첫 여성 회장... "이민 생활 풍요하도록 도움 주겠다"

호주 시드니시의 제34대 한인회장에 오혜영 한호문화교류협회 회장이 당선됐다. 시드니 한 인회는 9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오혜영 회장 이 3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제34대 회장에 뽑혔 다고 밝혔다.

10만여 명의 시드니 한인들을 대표하는 오 신임 회장은 시드니 한인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으로, 10월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호주에 이민해 은행에서 근무 한 그는 10여년간 한글학교 교사로, 8년 동안은 한글학교 교감으 로 봉사했다. 2019년 한호문화교류협회를 설립해 한인 시니어와



오혜영(왼쪽) 제34대 호주 시드니한인회장과 신정구 부회장

다문화-시니어 장관 간담회를 비롯해 호주 데이 카운슬의 주관 아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호 주 데이 경축 행사 등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문화학교 '다운칼리지'를 열고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오 회장은 "다문화 사회인 호주 안에서 한인 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 고 이민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회장은 그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한 신정구 변호사가 뽑혔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재일동포 역사 조명 특별전 개최

모국 공헌 앞장선 재일동포史 총 5부로 소개

한국이민사박물관(관장 김상열)은 모국 공헌에 앞장섰던 재일동포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在日), 다시 재일동포'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9일 시작된 특별전은 오는 12월 3일까지 넉 달가량 열린다.

전시 1부 '프롤로그'에서는 재일동포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족의 초상'을 소개한다. 2부와 3부는 각각 '식민지 조선에서 내지의 선인으로', '조선인에서 자이니치로'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재일동포의 역사와 광복 후 차별 속에서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삶을 조명한다.

4부 '재일동포, 열도에 우뚝 서다'와 5부 '에필로그'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에서부터 재일동포 기업인의 모국 투자, 88 서울올림픽 성금과 재일 한국 공관 용지 기증 등 공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동농기념사업회 강덕상자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재일동포 역사 조명 특별전' 모습

미주한인재단 하와이지부, 독립운동사적지 14곳에 안내문 설치

미주한인재단 하와이지부(회장 에드워드 솔츠)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최근 하와이 내 독립운동사적지 14곳에 모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하와이지부는 국가보훈부의 지원으로 지난 1월 해외 최초 한인 교회인 그리스도교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그간 독립운동사적지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다. 특히 900여 명의 초기 이민자들이 묻힌 오아후 공동묘지에는 표지판과 함께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감사비를 세웠다.

감사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친필로 쓴 '고맙습니다'라는 글귀가 들어갔다. 하와이지부는 또 국가보훈부의 후원으로 오아후 공동묘지에 안장된 독립운동가 정원명 지사의 묘비를 재건했다.



하와이 오아후 공동묘지에서 관계자들이 무명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감사비를 세운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와이 이민 1세대인 정 지사는 1907년 하와이에 최초로 창립된 항일 민족단체인 합성협회 창립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강진 백련사와 다산초당... '불교 구도의 성지'와 '실학의 요람'

만덕산에 800m 거리 두고 산길로 이어진 두 문화 유적

새벽 예불을 올리는 여승의 낭랑한 독경 소리는 전남 강진군 백련사(白蓮寺)의 대웅전 추녀에서 떨어지는 굵은 빗줄기를 뚫고 날아가 강진만 위로 올려 퍼졌다. 강진 만덕산(409m)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백련사에서 하루의 시작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백련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집대성한 다산학(茶山學)의 산실이었던 다산초당(茶山草堂)과 800여 m의 산길로 이어져 있었다. 만덕산은 야생차 나무가 많아 다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만덕산에는 다산이란 이름의 작은 봉우리도 있다. 초당에서 10여 년을 은둔하며 실학을 연구한 정약용은 이 봉우리 이름을 자신의 아호(雅號)로 삼았다. 만덕산에는 불교 구도의 성지와 실학의 요람이 이렇게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국사 8명 배출하고 백련결사 일어났던 절 백련사

백련사는 고려시대에 불교 법계(法階)의 최고봉인 국사(國師)를 8명이나 배출했고, 무신정권 당시 불교 정화 운동인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일어났던 곳이다. 만덕산에 안겨 강진만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찰의 도량(道場)은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 숲, 대숲, 차밭으로 뺨백이 둘러싸여 있다. 한때 전국 최대 규모 사찰로 대중 800여 명이 기거했던 백련사는 옛 명성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고즈넉해 요즘 보기 드물게 '절 같은 절'의 느낌을 준다. 이곳 대웅보전은 올해 6월 나라의 한국의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초 세종의 둘째 형으로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자 정치를 멀리하고 승려가 된 효령대군이 남쪽 땅끝에 있는 이곳 백련사에 8년 동안 은둔하며 지내며 간척 사업을 지도하기도 했다. 세종의 첫째 형인 양녕대군 역시 백련사에서 가까운 굴동마을에 거처한 적 있다.

책과 벼으로 절망 극복한 조선 천재 학자 정약용

매월당 김시습, 율곡 이이, 정조대왕 등과 함께 조선시대 천재로 거론되는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다. 네 살 때 천자문을 배우고 열 살에 자작 시집을 낼 만큼 총명했던 다산은 학문과 예술, 의학에 능했을 뿐 아니라 배다리, 수원화성, 거중기 등을 설계한 수학자, 과학자였다. 현대인들이 그에게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애칭을 선사한 이유다.

다산의 주변에는 천주교도가 많았다. 1801년 천주교도를 박해한 사건인 신유사옥 때 처형된 정약용은 그의 셋째 형이며, 조선 천주교 신자의 대규모 검거와 처형을 초래한 황사영 백서 사건의 발단이 됐던 황사영은 그의 조카사위였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은 정약용의 매형이었다.

1801년 강진에 유배돼 18년 동안 머물렀던 다산은 주막인 사의재, 고성사 보은산방 등을 전전하다 1808년에야 다산초당에 정착



1



2



1. 강진 만덕산에 있는 다산초당
2. 강진 '정약용 남도유배길' 2코스 모습
3. 전남 강진군 소재 백련사 전경
4. 백련사에서 내려다본 강진만
5. 다산 정약용의 영정

했다. 저서 500여 권의 대부분을 초당 시절에 썼던 다산은 자신의 저작에 대해 “복숭아씨가 세 번이나 구멍이 뚫리는 고통”이었다고 표현했다. 다산이 좌절과 절망을 학문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까이엔 책과 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진에서 멀지 않은 해남군에 있는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에는 당시 2천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 그 속에는 동양 고전, 희귀본,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명저도 적지 않았다. 학계는 다산이 녹우당의 양서를 빌려 탐독하고, 이를 저술에 활용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했으며, 목민관으로서 지속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삶과 업적이 인정돼 정약용은 2012년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다.

백련사 주지 혜장도 다산에게 큰 위안이었다. 유교 경전과 주역에 해박했던 혜장은 다산의 학문적 깊이에 감화돼 백련사에서 수시로 초당으로 내려가 그와 교류했다. 다산은 혜장의 소개로 인근 해남 대흥사에 있던 초의선사와도 교류했다. 학문에 통달하고 시서(詩書)에 능했던 초의선사는 한국의 다도를 정립한 인물로, ‘한국의 다성(茶聖)’으로도 불린다.

목민심서 등 정약용 주요 저작 다산초당서 완성

초당은 원래 해남 윤씨 집안 소유의 조출한 산정(山亭)이었다.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받은 다산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후진 양성과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다. 초당에서 목민심서 등 주요 저작을 완성하거나 기초를 잡았다. 초당에는 다산이 기거하며 집필실로 썼던 곳인 동암, 제자들의 공간이었던 서암, 강학 공간으로 썼던 본체가 있다. 다산은 틈나면 제자들과 함께 계곡과 연못을 거닐 차를 마시며 풍광을 시로 읊었다. 초당은 유배자의 쓸쓸한 거처가 아니라 선비가 꿈꾸던 이상적 공간이자 조선시대 학술사에 서 중요한 학문의 요람으로 거듭난 셈이다.

다산 유적지 연결한 ‘정약용 남도유배길’

강진에는 다산의 유적지를 연결한 ‘정약용 남도유배길’이란 도보 여행길이 조성돼 있다. 총 65.7km에 달하는 문화생태탐방로이다. 4개 코스로 구성된 이 길은 해남군 북일면 장수마을에서 시작해 주작산, 주작산 흔들바위, 다산 사위의 묘, 다산초당, 백련사, 이학래 생가, 사의재, 고성사 보은산방을 거쳐 영암군 월출산 천황사까지 이어진다. 인구 3만3천여 명인 강진군은 한반도의 귀퉁이가 아니라 역사, 학문, 종교, 문화의 유서가 깊은 현장이다. 백련사의 새벽을 깨우는 도량석(道場磔)을 주재하는 스님의 염불, 목탁과 범종의 맑은소리는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중생의 기억 속에 그윽한 울림으로 오래 머물러 있었다. [▶](#)

재외동포청-뱅크, 대한민국 바로 알리는 공공외교 힘 모은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재외동포 사회와 이들의 거주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9월 11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현지화하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도 있다.

동포청과 뱅크는 차세대 동포가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활약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정치·경제 발전 및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발전상 교육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인 점 등 정치·경제의 발전상을 현지 교과서에 수록하는 공공외교를 동포사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해 동포 역사를 비롯해 이주 역사와 모국에 대한 기여 등을 알리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의 박기태 단장이 9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을 널리 알리는 일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동포 정책의 핵심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박기태 뱅크 단장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한총련 국회서 모국 기여 현황 발표... 재외동포청 후원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련·회장 심상만)는 10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국 한인회의 모국 기여 현황을 발표했다.

각국 한인회가 모국의 독립과 건국,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공적과 공공외교 등을 돕기 위한 각종 노력을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였다.

‘한인회의 모국 기여 발자취,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 전 세계 한인회가 어떻게 모국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발표했다. 이어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가 필리핀 중부



세한총련이 10월 개최한 ‘한인회의 모국 기여 발자취’ 세미나와 ‘2023 워크숍’의 안내 포스터

루손한인회, 캄보디아 시엠립한인회, 일본 지역 한인회의 기여 현황을 소개했다.

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엘라바마한인회, 피츠버그한인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관계자가 모국을 위한 헌신 등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했다.

세한총련은 10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3 워크숍’도 개최했으며, 심상만 회장을 비롯한 단체 고문, 임원, 회원,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중미카리브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열려… 재외동포청 후원

중미카리브한글학교협의회(회장 진정아)가 도미니카공화국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제9회 중미카리브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중미지역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온 한글학교 교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로 9월 14~16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진정아 회장, 손일석 도미니카한국대사관 영사, 최상민 도미니카한인회장을 비롯해 도미니카, 멕시코, 과테말라 한글학교 교사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육효창 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승민 워싱턴새언약한국학교 교장으로부터 '훈민정음 체계 및 제자 원리를 활용한 한글 교육', '한국어 발음과 한글 교육', '학교 및 협의회 운영', '학습 지도안 설계' 등의 강의를 들었다. 현지 문화 탐방에 이어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로상 수여식도 열렸다.

이밖에 중미카리브한글학교협의회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과 한글학교 교사의 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과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연수는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중미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버젓한 아버지에게

후카자와 우시오 씀 · 이재봉 옮김 / 전망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재일동포 2세 작가 후카자와 우시라(深澤潮·57)의 장편소설이다. 후카자와의 다른 작품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버젓한 아버지에게'는 일본 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인종 차별 문제가 재일조선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이들의 삶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있다.

자신을 순수 일본인이라고 믿는 '도모미(朋美)' 이름의 혼혈 여성이 아버지가 재일조선인이며 간첩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에 접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이 작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 사회의 차별·억압적 구조에 눈을 뜨고 한국 전 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도 이 소설의 주요 뼈대다. 어린 시절 종적을 감춰버린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 또한 이 소설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도모미가 찾고 있는 아버지 역시 소설 속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가명 '스기하라 미츠오(杉原光男)', '이광남(李光男)'과 '가네다(金田)'와 '김(金)' 같은 본명도 자신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듯 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저자는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주요한 문학적 주제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재일조선인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꿈꿨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서 추석맞이 ‘고려인 문화의날’ 축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이 추석을 맞아 한마당 축제의 장을 열었다.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는 9월 29~30일 고려인문화센터에서 '2023년 제7회 고려인 문화의 날'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2007년 제6회 행사 이후 16년 만에 열렸으며, 내년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축제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우수리스크 시내를 행진하고, 다민족과 어울리며 사물놀이 등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의 분위기를 돋웠다. '고려인 문화의 날'은 이들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연해주 지역 고려인 단체들과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 동북아평화연대 등의 후원으로 2001년 시작됐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쿄서 '간토대지진 학살 증언' 특별전시회

재일한인역사자료관(관장 이성시)은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특별 전시회를 도쿄 한국중앙회관에서 개최 중이다. '역사의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는 전시로 지진 당시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이들의 증언 기록 등의 자료를 모아 소개한다. 전시는 학살 현장 목격 후 각종 조사 등에서 증언했던 기록을 소개하는 '100년 전 그날의 목격자들'과 당시에는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 학살을 지켜봤거나 관여했던 것을 털어놓은 '오랜 침묵을 깬 증언자들'로 나눠서 전시하고 있다. 조선인 학살을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처음 알린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을 저술한 고(故) 강덕상 전 관장의 관련 도서와 원고도 전시한다.



아시아지역 한상 300명, 충남 소재 기업 수출길 터준다

아시아 지역 한상(韓商)들이 충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아시아 지역 22개국 한인회를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한상총연합회(회장 윤희)는 오는 11월 8~10일 사흘간 충남 논산시 논산아트센터와 전천후 실내체육관에서 '2023 아시아 한상대회'를 연다. '아시아 한상과 논산, 세계를 날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지역 23개국에서 활약하는 한상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 단체가 고국에서 '아시아 한상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상담회 등을 통해 충남 지역 50여개 기업의 수출길을 터주는 동시에 축적된 경험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재일민단, 도쿄서 재일동포 차세대 대상 한복 체험 행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10월 15일 도쿄 한국중앙회관에서 재일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복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향순 한복보급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서서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강의, 한복 입기 체험, 절하기, 전통 예절 배우기 등을 맡았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했다.



하기환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회장 “21년 역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미국서 첫 개최로 재도약”



하기환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회장

“20년을 넘기며 다소 침체했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가 올해 첫 미국 개최를 계기로 다시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기환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회장은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이번 대회의 남다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20차까지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는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해외인 미국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개막한 행사는 10월 14일까지 나흘간 이어졌다.

하 회장은 그동안의 세계한상대회 역사를 돌아보며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참석자도 상당히 적었고 기업 전시관도 몇 개가 없었다”며 “20년을 한국에서 하다 보니 타성에 젖은 측면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걱정스러운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한 것이 기폭제가 돼서 올해부터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첫날인 오늘 벌써 입장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니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미국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격년에 한 번씩 해외를 돌며 행사를 열기로 했다. 하 회장은 “2년에 한 번씩 해외에서 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라며 “훨씬 더 알차고 아주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 회장은 미국 내 대표적 한인 식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한남체인 대표이사다. 1998년 설립된 한남체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 6개, 뉴욕에 1개 점포를 두고 있으며, 연 매출이 2억5천만달러(약 3천360억원)가 넘는다. 하 회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손꼽히는 한인 기업가로서 이번 대회의 수장을 맡아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등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에 좋은 제품 아주 많아… 미국서 잠재력 커”

그는 “한국에 가보면 좋은 물건이 정말 많은데,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마케팅을 못 해서 좋은 물건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그 첫 번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BTS(방탄소년단) 같은 팀들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굉장히 좋아졌다”며 “한국 제품이 계속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데는 인적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더욱 발전해서 한인 비즈니스맨의 메카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1월 13~16일 서울서 개최



2022년 8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구촌 한인 정치인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오는 11월 13~16일 나흘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의 슬로건은 ‘Our network is our net worth’이다.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현직 한인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 임

명직 고위 공무원, 재외공관 또는 현직 정치인이 추천한 차세대 유망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개·폐회식, 오찬과 만찬, 강연, 산업현장 시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이 행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2023 제25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나흘간 국내에서 개최한다.

재외동포청장 동정

- 10월 17일: 월드킴과 세계대회 전야제 참석 및 축사
- 10월 5일: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 10월 4일: 파독 광부 초청행사 참석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참석
- 9월 13일: 재외동포청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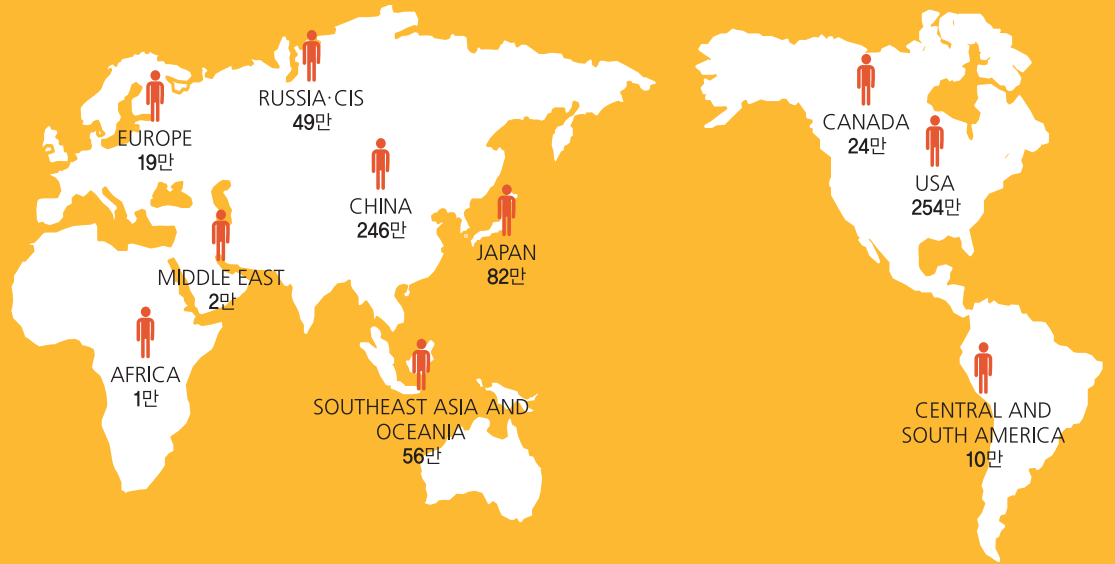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청은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